

# '진안용담호, 희생을 넘어 미래로!' 민선9기 첫 주요업무 보고

### 진안군·K-water 용담댐지사, 제2회 진안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성료

진안군은 지난 4일 안전면 소공원에서 제2회 진안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진안군과 K-water 용담댐지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용담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수물 이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수물민과 군민, 관계기관이 함께 화합과 상생의 미래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용담호, 희생을 넘어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수물 이주민, 군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용담호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렸다.

행사는 풍물과 가곡, 난타 등 식전 문화공연으로 시작됐으며, 기념식에서는 공로패 수여와 기념사·축사, 용담호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영상 상영, 허호석 시인의 시 낭송, 용담호를 품어준 이원택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수물 이주민, 군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용담호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렸다.

행사는 풍물과 가곡, 난타 등 식전 문화공연으로 시작됐으며, 기념식에서는 공로패 수여와 기념사·축사, 용담호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영상 상영, 허호석 시인의 시 낭송, 용담호를 품어준 이원택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수물 이주민, 군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용담호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렸다.



진안군은 지난 4일 안전면 소공원에서 '제2회 진안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운영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오후에는 노래자랑과 초청가수 공연, 경품추첨 등 화합 한마당이 펼쳐졌다.

특히 초청가수 윤수현은 용담댐 수물민들의 애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용담호야 사랑한다'를 열창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특히 행사는 용담호를 생태·치유·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자원으로 재조명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이원택 도사는 "진안군민의 희생으로 전북도민들이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

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만큼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진안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용담댐 건설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내어준 수물 이주민들의 희생은 오늘의 진안용담호를 있게 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이번 행사가 수물 이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된 것은 물론, 용담호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어르신 돌봄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

###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디퓨저 만들기 체험·식사 나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마경숙)는 6일 무주여성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40명과 여성단체 회원 10명이 함께하는 '어르신 돌봄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번 사업은 무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사업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문화누리(대표 박용수)의 진행 아래 디퓨저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어르신들은 직접 디퓨저를 만들며 향기로운 생활을 통해 마음과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체험활동 이후에는 여성단체 회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나



누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지원했다.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 무주군, 취약계층 생계 돕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

무주군이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 상·하반기 총 20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0명이 무료 경로식당과 최북미음료 뮤지엄라운지

등 4개 사업장에서 운영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 장수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군정 운영 방향 마련 나서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주요 현안 해결방안 마련으로 군정 실행력 강화

장수군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군청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고, 군정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주요업무 보고로,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최훈식 장수군수 주재로 이정우 부군수와 국·소장, 20개 부서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과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부서별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공유해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주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



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장수형 기반사회 추진체계 구축과 5대 분야 정책 활성화 등 민선9기 공약사업 61건을 비롯해 △장수누리랜드 관광중심거점 조성 △반합주택 등 맞춤형 주택 조성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조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사업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현안사업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사업별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민선9기 공약사업과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형 기본사회 실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나서

진안군은 6일 군청 강당에서 실과소 및 읍·면 간부공무원과 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전북연구원 인구전략실 선임연구위원이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영도 박사가 '기본사회 이해와 지역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했다.

황 박사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주거, 불분

의료, 교육 등 삶의 기본조건을 함께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지역 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한 소득지원 정책을 넘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소프트테니스 꿈나무들, 필리핀 국가대표와 특별훈련

장수군 소프트테니스 꿈나무들이 필리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한 특별한 합동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경기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순창오픈 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한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은 지난 4일 바쁜 대회 일정을 마친 뒤 장수초등학교와 장수중학교를 찾아 학생 선수들을 위한 재능기부 특별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기본기부터 경기 운영, 실전 기술까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세심하게 지도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홍삼축제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 진안홍삼축제'의 전국적인 홍보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6 진안홍삼축제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진안홍삼축제를 홍보하는 60초 이내 세로형 숏폼 영상'을 주제로 진행되며, 축제의 다양한 매력과 즐길거리, 진안홍삼의 우수성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영상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오는 7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심사는 참가 작품을 진안군 공식 유튜브에 게시한 후 7월 21일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의 조회수를 반영해 진행된다.

수상작은 4개 팀, 총 200만 원 규모의 은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진안군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3일 열린 이번 성과대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한의약 대사중후군 관리 교실'이다. 이 사업은 비만을 개선 위한 운동요법과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사중후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20~65세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기초검진 △유산 소운동 및 식이교육 △비만관리 한방진료 △스트레스 해소 웃음치료 △한방 건강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군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